



미 증시, FOMC 결과 대기하며 낙폭 축소 마감

미국 증시 리뷰

19일(화) 미국 증시는 FOMC 결과를 대기하며 시장금리 상승, 브렌트유 95 달러 돌파 등이 하방 압력 가하며 하락 출발했지만 장후반 반발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 마감 (다우 -0.31%, S&P500 -0.22%, 나스닥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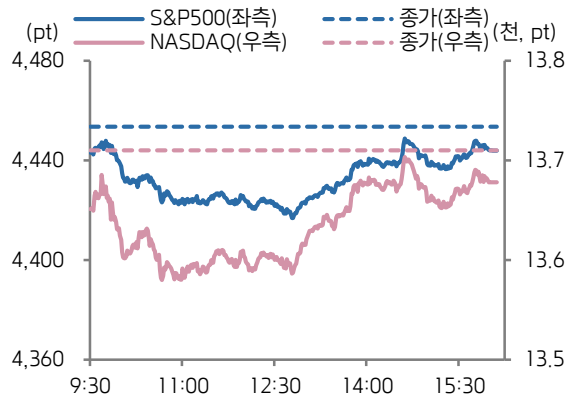
OECD 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긴축과 미국, 중국의 성장속도 둔화로 2024 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 월 3.0% 에서 2.7%로 하향 조정. 미국은 긴축 재정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2.2%, 내년 1.3%로 전망. 중국 역시 위드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재개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은 5.1%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탓에 4.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 지난 6 월과 동일하게 올해 1.5%, 내년 2.1%로 전망했으며, 일본은 임금 상승률 개선과 서비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8%, 내년 1.0%로 성장 속도가 다시 둔화할 것으로 전망.

미국 8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MOM -11.3%(예상 -0.9%, 전월 2.0%) 감소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반면 미래 건설의 척도로 인식되는 건축허가 건수는 MOM 6.9%(예상 -0.2%, 전월 0.1%)로 증가. 특히 단독주택 건설 허가 요청이 2022년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향후 주택 시장의 공급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확산.

유로존 8월 CPI 는 YOY 5.2%(예상 5.3%, 전월 5.3%), MOM 0.5%(예상 0.6%, 전월 0.6%)로 전월대비 하락. 근원 CPI YOY 5.3%(예상 5.3%, 전월 5.3%)로 예상치 부합. 식품과 알코올, 담배의 상승 기여도는 1.98% 포인트, 공업제품 1.19% 기록하는등 서비스 부문은 상승했으나 에너지 부문 하락폭이 전체 지수 하락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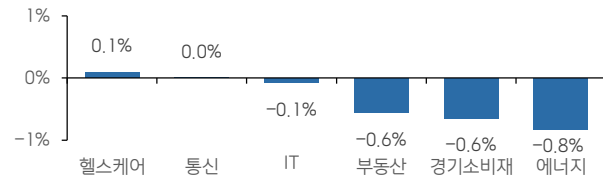
헬스케어(+0.1%) 업종만이 강세, 에너지(-0.8%), 경소비재(-0.6%), 부동산(-0.6%)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북미 식품품 배달업체인 인스타카트(12.3%)가 상장 첫날 공모가 30 달러 대비 장중에 40% 이상 상승하며 IPO 흥행에 성공했으나 이후 19% 급락세를 보이며 33 달러대에서 마감. 포드(1.785), GM(1.86%), 스텔란티스(1.50%)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측이 현지시간 22 일 정오까지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 참여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매수세 유입되며 반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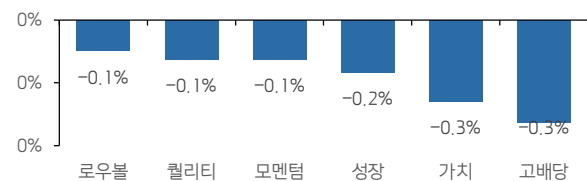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코스피 | 2,559.21 | -0.6% | USD/KRW | 1,328.44 | +0.31% |
| 코스피 200 | 338.82 | -0.54% | 달러 지수 | 105.14 | -0.06% |
| 코스닥 | 883.89 | -0.83% | EUR/USD | 1.07 | +0.02% |
| 코스닥 150 | 1,376.69 | -0.76% | USD/CNH | 7.30 | +0% |
| S&P500 | 4,443.95 | -0.22% | USD/JPY | 147.78 | -0.05% |
| NASDAQ | 13,678.19 | -0.23% | 채권시장 | | |
| 다우 | 34,517.73 | -0.31% | 국고채 3년 | 3.885 | -0.9bp |
| VIX | 14.11 | +0.79% | 국고채 10년 | 3.952 | -2.3bp |
| 러셀 2000 | 1,826.53 | -0.42% | 미국 국채 2년 | 5.090 | +3.6bp |
| 필라. 반도체 | 3,459.02 | -0.96% | 미국 국채 10년 | 4.359 | +5.6bp |
| 다우 운송 | 15,164.26 | -0.58% | 미국 국채 30년 | 4.424 | +4bp |
| 유럽, ETFs | | | 원자재 시장 | | |
| Eurostoxx50 | 4,242.70 | -0.07% | WTI | 91.2 | -0.31% |
| MSCI 전세계 지수 | 678.56 | -0.17% | 브렌트유 | 94.34 | -0.1% |
| MSCI DM 지수 | 2,951.17 | -0.17% | 금 | 1953.4 | -0.02% |
| MSCI EM 지수 | 974.50 | -0.17% | 은 | 23.19 | -0.16% |
| MSCI 한국 ETF | 62.58 | -1.06% | 구리 | 371.4 | -0.73%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6.7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9월 FOMC 경계심리의 장중 심화 여부 2. 제한된 지수 흐름 내에서 주요 테마주들간 순환매 전개 가능성 3. 중기 추세선인 120 일선 지지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이번 FOMC 에서 관련 포인트는 금리 동결 여부가 아니라 1) 점도표 변화, 2) 경제 전망 변화, 3) 파월 의장 발언 수위 변화에 있을 것.

점도표는 6 월 FOMC 에서 중간값을 기준 5.1%에서 5.7%로 상향하긴 했지만, 현재는 고금리 부담 누적, 연준 내부적인 의견 대립 격화 등으로 점도표의 추가 상향은 쉽지 않아 보임. 경제전망은 6 월 FOMC 에서 '23년 성장률 (3 월 0.4% - > 6 월 1.0%)과 코어 PCE(3.6% -> 3.9%)는 상향 조정, 실업률(4.5% -> 4.1%)은 하향조정하는 등 매파적인 변화를 주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여진을 차주까지 유발하기도 했음. 6 월 FOMC 이후에도 미국 경제 지표들이 견조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도 9월 FOMC 에서도 소폭의 경제 전망 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비하고 있는 모습.

파월 의장 발언의 경우, 8 월말 잭슨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결정, 코어 물가 증시 등의 스탠스를 표명하면서 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매파적 발언을 했다는 점이 잭슨홀 이후 증시에 안도감을 제공했던 경험이 있음. 최근 국제유가 90 불대 상향돌파로 인한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코어 물가가 아닌 헤드라인 물가 상승에 대한 코멘트 변화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따라서, 금리 동결을 전제로 관전포인트를 반영해 당사가 제시하는 Base case 와 Best, Worst case 를 도출해보면,

- 1) Best case(20%): 점도표 변화 없음 + 경제전망 변화 없음 혹은 하향 + 긴축 종료 암시 등 시장 친화적 발언
- 2) Base case(70%): 점도표 변화 없음 + 컨센에 부합하는 경제전망 상향 + 코어 인플레이션 증시 발언 및 추가 인상 가능성만 열어놓는 발언
- 3) Worst case(10%): 점도표 상향 + 컨센을 상회하는 경제전망 상향 + 유가 상승 등에 따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 재차 피력 및 추가 인상 예고성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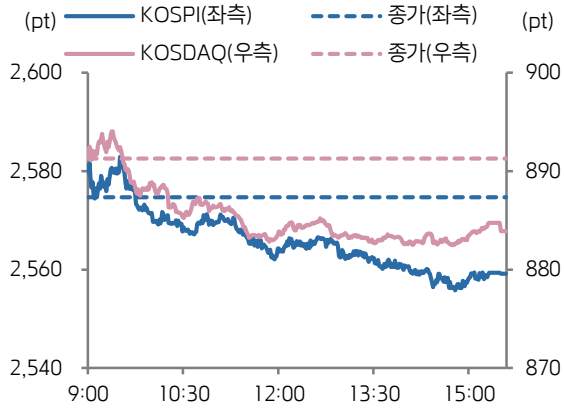
이렇게 세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해 볼 수 있음. Base case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연후로 인한 단기 수급 불안이 있을지라도) 10 월 이후부터는 실적시즌에 주목하면서 중립 이상의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 속 유가 상승 부담, FOMC 경계심리 등으로 반도체, 2 차전지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8%).

금일에도 미국 10 년물 금리 전고점 돌파 부담, 9 월 FOMC 대기 심리 등으로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뚜렷한 주도 업종은 보이지 않은 채 지수는 갇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원전, 위성통신, 로봇, 비만치료제 등 주요 테마주간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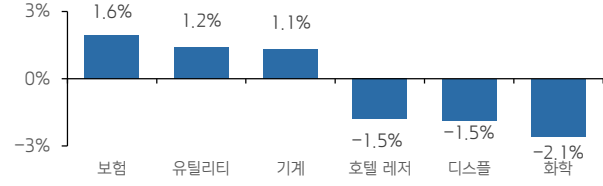
또 전일 코스피 증가는 2,559pt 를 기록하며 중기 추세선인 120 일선(2,558pt)을 하향 이탈을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 차트는 보조지표이자 후행지표이긴 하지만, 증시 추세를 판별할 때 이를 투자자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120 일선 하향 이탈은 일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추세 반전의 불안감을 갖게 만들 수 있음.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FOMC,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및 2 차전지 등 주도 업종들의 단기 수급 불안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120 일선 지지 여부도 금일 시장의 관심권에 놓여있을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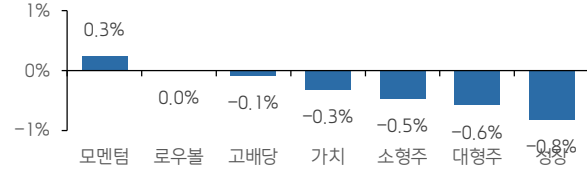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